봄나들이 나온 나한과 성보공예

2019 불교중앙박물관 테마전

‘나들이 나온 나한’, ‘불심의 향연’
4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보물 4 포함 총 35건 69점 전시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나한신앙과 불교공예를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린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송하)은 4월 2일(개막식 오후 3시)부터 7월 31일까지 2019년 테마전 ‘나들이 나온 나한’과 ‘불심의 향연’을 개최한다. 보물 4건을 포함해 총 35건 69점의 유물을 전시한다.

‘나들이 나온 나한’ 전에서는 여수 흥국사 응진당에 봉안되었던 석가모니 삼존불과 십육나한상(1655), 십육나한도(1723, 보물 제133호)를 선보인다.

1196년(고려 명종26) 보조국사 지눌이 창건한 여수 흥국사는 조선후기 의승수군 활동의 중심지로 대표적인 호국사찰이다. 흥국사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응진당에는 삼존불, 십육나한 및 권속 등 총 27존의 조각상과 7폭의 그림이 봉안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석가삼존불과 십육나한상은 1655년(효종 6)에 인균 스님이 조성했다. 인균 스님은 17세기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조각승으로 그의 개성이 드러나는 나한상도 여러 점 전한다.

십육나한도는 1723년(경종 3)에 의겸 스님이 그린 것으로 자유로운 존상 자세와 짜임새 있는 배치, 새로운 도상의 수용, 수묵화기법의 활용 등 조선 후기 십육나한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조각승 인균 스님과 화승 의겸 스님의 격조 있고 아름다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나한(羅漢)’은 아라한(阿羅漢)의 줄임말로, 응공(應供), 살적(殺賊)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나한은 불법(佛法)에 귀의해 일체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은 경지를 말한다. 경전에 나타난 나한은 신통력을 지니고 불법을 수호하여 중생들이 현세에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

불교공예품의 쓰임을 이해하고 우수한 예술성을 감상할 수 있는 ‘불심의 향연’ 전에서는 2월 26일 일괄 보물로 지정예고된 인각사 출토 공양구(통일신라 8~9세기, 인각사)와 흥국사 소대(조선 후기), 봉은사 청동은입사향완(1334년, 보물 제321호) 등이 전시된다.


흥국사 16나한상(1655)


흥국사 소대(조선후기)

인각사 묘탑 공양구는 2008년 발굴조사 중 승탑지에서 발견됐으며, 병향로와 정병, 향합, 이중합, 금고 등과 금동가릉빈가상이 함께 발견되어 통일신라시대 공예사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인각사 공양구는 출토지가 명확하고, 제작시기를 추정할 수 있어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높고, 뛰어난 조형성과 섬세한 기법도 돋보인다.

불교공예는 사찰에서 수행과 신행을 위해 쓰이던 많은 기물들을 말하며, 목적과 기능에 따라 크게 의식구(儀式具), 공양구(供養具), 장엄구(莊嚴具)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불교공예품은 단순한 공예품이 아닌 의식을 통해 불보살과 교류할 수 있는 상징적이면서 기능적인 매개체로, ‘의식’과 ‘장엄’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통해 예배자가 불보살을 장식하고 공양 ·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는 성보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번 전시에는 박물관이 기증받은 유물 중 일부를 특별 공개한다. 원행 스님이 기증한 달항아리를 비롯해 스님들이 수행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용품과 유품들이 함께 전시된다. (02)2011-1966.

걸작, 화엄사 삼신탱불을 만난다

화엄사 ‘화엄에 머물다’ 展
삼신불탱 복원모사도 전시
서울 아라아트센터 4월 3~8일

조선 후기 불화 중 걸작으로 손꼽히는 화엄사 대웅전 삼신탱불(보물 제1363호)이 서울 나들이를 한다. 화엄사(주지 덕문)는 4월 3일부터 8일까지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화엄에 머물다’ 展을 통해 삼신탱불의 복원 모사도를 선보인다.

화엄사 대웅전 삼신탱불은 18세기 당대를 대표하며 대화사(大畵師)로 이름이 높았던 의겸 스님의 지도 아래, 색민, 정인 스님 등 13명의 화승이 동원된 수작으로 18세기 삼신탱불의 구성을 완전히 갖추고 있다.

높이가 5m에 달하는 대작이면서 3폭 화면에 비로자나불 · 석가모니불 · 노사나불이 각각 조성된 형태의 대형불화는 매우 드물어 ‘통도사대광명전삼신불도(보물 제1042호)’와 더불어 한국불교회화사에서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불

3폭으로 조성된 삼신탱불은 중앙의 비로자나불탱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노사나불탱, 오른쪽에는 석가모니불탱을 모셨다. 법신인 비로자나불도는 화면 중앙 상단의 본존불을 중심으로 좌우협시인 문수 · 보현보살과 8대보살, 4위의 타방불과 6위의 제불, 사자와 코끼리 탈을 쓴 성중(호계대신), 복덕대신들이 에워싸듯 배치되어 대칭을 이루고 있다.

키 모양의 광배를 가지고 있는 본존불은 결가부좌로 앉아 있으며, 지권인의 손모양을 하고 있다. 귀 · 눈 · 입 · 코 등이 단정하게 표현되어 있고, 무릎 폭이 넓어 안정감이 있다. 머리에는 중앙계주와 정상계주가 크고 귀는 길다. 다자색 법의의 깃을 따라 연두빛과 분홍빛깔의 보상화무늬가 장식되어 있다.

보신(報身)인 노사나불도는 두 손을 어깨까지 들어 올려 설법하는 모습의 손모양에 보관을 쓴 보살형의 본존불을 중심으로 8대보살과 사천왕상 2위, 4위의 타방불, 3신장과 4금강이 주위에 둘러 배치되어 있다. 단정한 귀 · 눈 · 입 · 코 등에 안정된 자세를 취하고는 있으나, 둥근 머리광배에 보관을 쓰고 귀걸이 · 목걸이 · 팔찌 · 구슬 장식 등을 화려하게 장식하여 보살형 불상으로서의 꾸밈이 돋보인다.

화신(化身)인 석가모니불도는 유난히 몸광배가 큼직한 키형 광배에 항마촉지인의 손모양을 하고 있는 본존불을 중심으로 하단에는 문수 · 보현보살을 포함한 6대보살과 함께 2구의 사천왕상을 그리고, 그 위로는 흔히 등장하는 타방불 대신 가섭 · 아난존자를 비롯한 10대 제자 및 4금강과 3신장, 용왕 · 용녀를 에워싸듯 배치했다.

이번에 제작된 복원 모사도는 준비과정부터 바탕천 등의 재료연구 및 작업방법 연구, 그림채색, 장황(배접 후 봉축 걸이 부착 마감작업)까지 총 3년에 걸쳐 완성됐다. 유래 없는 대작이 복원되는 만큼 문화재 전문 본존과학 인력도 대거 투입됐다. 불교미술을 전공한 전문 연구원 28명이 채색작업에 투입되었고, 바탕천 바느질(5명) · 배접 및 장황(4명) · 보관함 제작(5명) 등 각 분야 최고의 장인이 제작에 참여했다. (02)733-1981. 박재완 기자

사진으로 보는 백제의 정수 ‘석탑’

‘석탑에 깃든 백제의 숨결’ 展
나주박물관 3월 26일~4월 21일

(사)국립나주박물관후원회(이사장 이순옥)가 창립 5주년을 맞아 3월 26일부터 4월 21일까지 국립나주박물관에서 사진전 ‘석탑에 깃든 백제의 숨결’을 개최한다.

백제 석탑과 백제 석탑의 전통을 계승한 고려시대의 백제계석탑을 소개하는 이번 전시는 문화재사진연구소 회원들이 촬영한 백제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석탑들의 사진이 전시된다.

백제계 석탑은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는데, 고려시대에 불교가 중앙을 벗어나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하며 토착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긴 세월 우뚝 선 탑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백제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막일인 3월 26일 오후 3시에는 이번 사진전과 관련하여 문화재사진작가의 특별강연회와 전시설명회도 진행된다. 장선필 사진작가가 ‘문화재와 사진’이라는 주제로 문화재 사진 촬영 기법에 대해 특별 강의한다. (061)330-7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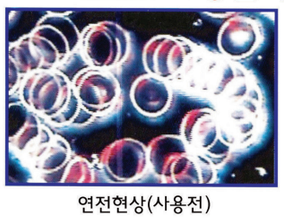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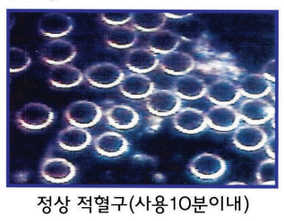
박재완 기자


박영희 作, 담양 연동사지 삼층석탑(전남문화재자료 제200호).

“비누로 손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7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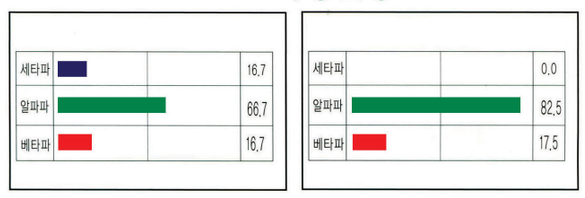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탈모예방

사용전
발모촉진

사용6개월 후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 어깨, 허리통증, 방사능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검버섯

제거 현상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